

행복한 가을 날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01 카자흐스탄 어린이에게 일어난 행운에 본원 의료기술을 더 하다!

2012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재활치료와 한방치료를 통해 많이 호전된 상태로 퇴원한 카자흐스탄 삼갓(남, 4세)이 재활의학과 치료를 받기 위해 두 번째 방문했다. 삼갓은 출생 당시 뇌 손상 뇌성마비로 인해 사지 마비 진단을 받았지만, 현지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가정형편으로 장기간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2년 삼갓은 카자흐스탄 정부 지원자에 선정되는 행운을 얻어 본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본국으로 돌아간 삼갓은 낙후된 카자흐스탄의 의료환경으로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상황에서 두 번째 지원을 받아 11월 본원을 다시 찾게 되었다. 훌쩍 자란 모습으로 본원을 찾은 삼갓은 말 한마디 할 수 없던 예전과 달리 2012년 본원에서 치료받던 상황을 기억하듯 한국어로 '엄마'라는 단어를 할 수 있을 만큼 달라진 모습이었다. 동국대학교병원은 삼갓이 이번 치료를 마지막으로 본국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신의료기술과 장비를 동원하여 치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02 에볼라 환자 발생 대비 모의 훈련 시행

감염관리실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에볼라바이러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에볼라 환자 발생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시행했다. 10월 30일에는 응급의학과와 응급실 의료진, 31일에는 내과 전체 교수, 전공의, 인턴을 대상으로 이틀에 걸쳐 시행했다. 훈련은 관련 저널 리뷰와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근거한 대응법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직접 개인 보호장구 착·탈의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박성연 감염관리실장은 훈련에 앞서 치명률이 높은 중증 감염병인 에볼라 바이러스병에 대한 안내와 에볼라 의심환자 진료 시 개인 보호장구 착·탈의법에 대해 미리 공지하여 훈련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했다. 이번 훈련으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전 교직원이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3 응급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

동국대학교병원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5층 대강당에서 심폐소생술 실습교육을 4일부터 6일까지 시행했다. 운영지원팀에서 주관한 이번 교육은 10월 13일 협력업체 직원, 11월 11일 전체 교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병원에 근무하는 전 교직원이 교육을 이수했다. 본원은 앞으로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고도화하여 '더 안전한 병원,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본원은 올해 고양시 심폐소생술 집체 교육을 시행하는 병원으로 선정되어 4월부터 11월까지 응급상황 대응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04 '건강한 폐경, 행복한 삶' 11월 폐경의 달 기념 건강강좌 열어

산부인과에서는 '11월 폐경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대한폐경학회와 함께 11월 19일 5층 대강당에서 갱년기 건강에 관한 특강을 개최했다. '건강한 폐경, 행복한 삶'의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약 100여 명의 환우와 인근 주민이 참여하여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으로 시작했다. 참석자들은 본인의 골밀도 상태를 점검한 후 산부인과 윤상호 교수의 △건강한 폐경, 행복한 삶 △실제 나이는 중년, 뼈 나이는 청춘으로 살기, 2가지 주제의 특강을 들으며 폐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폐경학회가 11월을 '폐경 여성의 달'로 정해 매년 11월에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13개 대학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11월 친절간호사



81병동 강은정 간호사

늘 웃는 얼굴로 환자와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강은정 간호사님을 추천합니다!

주인공 15호

외래간호팀장

오미정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어릴 적 꿈을 그리는 오미정 외래간호팀장.

취미 생활을 하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자신의 본 모습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어릴 적 꿈을 취미생활로 한다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 어릴 적 꿈인 미술을 취미생활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민화를 그리는 오미정 외래간호팀장을 이번 주 주인공으로 소개합니다.

민화전시회와 외래간호팀 사무실에 걸려있는 민화를 보면서 바쁜 업무 중에도 본인의 꿈을 찾아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외래를 구석구석 누비며 환자와 직원들의 작은 것까지 챙겨주시는 정성과 열정이 민화 속 안료에 하나하나 녹아있는 듯합니다.

항상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라는 이유로 꿈을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2014년도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어린 시절 꿈을 이루지 못한 분이 있다면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취미생활을 통해 꿈을 실현하는 행복한 상상을 해 보면 어떨까요.

시설관리팀 이승욱

알 리 미

유리공예 전시 일시 : 11월 24일 (월) ~ 12월 6일 (토) | 장소 : 1층 전시장

동맥경화와 당뇨병의 날 행사 일시 : 11월 26일 (수) 08:00 ~ 13:00 | 장소 : 4층 중강당
강사 : 심장혈관내과 김영권 교수, 내분비내과 김경아 교수

일산동구보건소 건강강좌 일시 : 11월 26일 (수) 10:00 ~ 11:00 | 장소 : 일산동구보건소
강사 : 정형외과 안지현 교수 | 주제 : 관절염